

경기 비정규직 지원센터

비정규 이슈

경기도 산하기관부터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든든한 제도 구축을 기대하며 (문경희 경기도의원)

주요 노동상담 사례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센터 발간 자료

2016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

2017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수첩

취업진로 Guidebook

현장의 눈

요양보호사들이 뿔났다

(김광민 경기도요양보호사협회 사무국장)

센터 교육·행사 일정

요양보호사 '3,4 등급 방문요양 1시간 단축 철회축구' 기자회견

주요 일정

경기노동정책포럼 (준) 2차 모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2017년 상반기 도·시군·공공기관 합동 교육

2017 경기지역 노동권 교육 신청안내

2017 희망찾기연극동아리 모임 신청안내



경기도 산하기관부터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저는 20대 중반을 ‘비정규직’으로 보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호텔 룸서비스, 피자 배달을 하는데 5~6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졸 정규직의 절반 정도 금액인데, 고용도 불안하고 급여가 너무 적어서 어떻게 사나 막막했습니다. 보험영업, 카드영업도 해봤고, 신문보급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신문배달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직장,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토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근무 형태도 고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찾지 못하는데 대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찾고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어렵게 정규직의 행운을 찾았는데, 그 후에 IMF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경험만한 스승은 없다’고 합니다. 제 경험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임금 근로자 1,960만 명 중 644만명이 비정규직입니다. 32.8%가 비정규직 신분이고, 10년 새에 1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정규직 증가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비애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경기도의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미 지난해에 청소용역을 직접고용 형태로 바꿨으며, 지역상담소 직원들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경기도체육회가 체육회관 관리직원 16명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한 것을 보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직접고용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는 간접고용 인력이 많습니다. 이를 직접고용으로 바꾼다면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장 간담회 결과 직접고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이 오롯이 책임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남경필 도지사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꾸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꿈과 희망을 이루는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 21.3%에도 못 미치는 7.6%입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민간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며, 저도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 센터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든든한 제도 구축을 기대하며



문경희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우리 사회에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핵가족화 등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가족 부양의식은 약화된 반면, 어르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증대되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기준, 총 1,318,882명으로 도 내 인구(12,522,606명) 중 10.53%가 노인인구에 해당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고, 치매, 중풍, 만성질환 문제를 갖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보호와 돌봄이 사회화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기준, 경기도에는 5,252개소의 재가시설과 1,599개소의 요양시설이 있으며, 약 15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서비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일선에서 어르신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대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의 돌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수준 등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 향상,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분들은 처우개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지난 2월 22일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요양보호사 분들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등과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도 내 장기요양요원분들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도 내 노인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함께 소통하며 처우개선의 단계 단계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에 힘을 다하고자 한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 센터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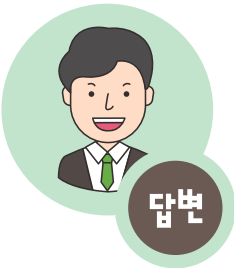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015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16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는데

1년이 넘는 6개월 부분에 대해서도 휴가가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월차휴가제도는 삭제되고, 현행법에서는 ‘연차휴가’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란 1년마다 산정되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마다 산정하여 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월 개근시 1일의 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단위로 휴가가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기간이 1년 6개월이나 1년 11개월이나 연차휴가 일수는 15일로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일수를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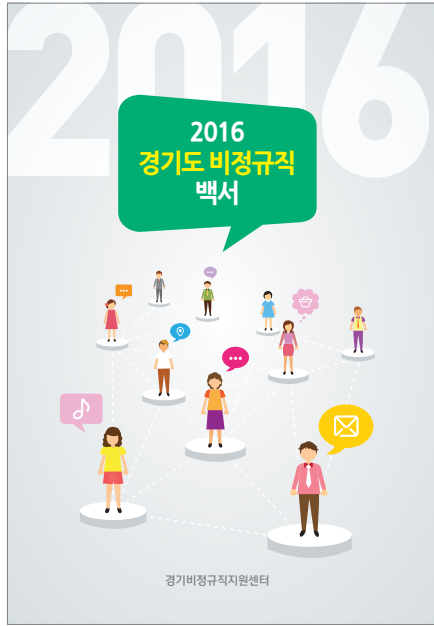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7년 초에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수첩, 취업진로 Guidebook을 발간하였습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출판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일은 홈페이지(www.behappyone.kr 자료실) 발간자료, **바로가기**)에서 읽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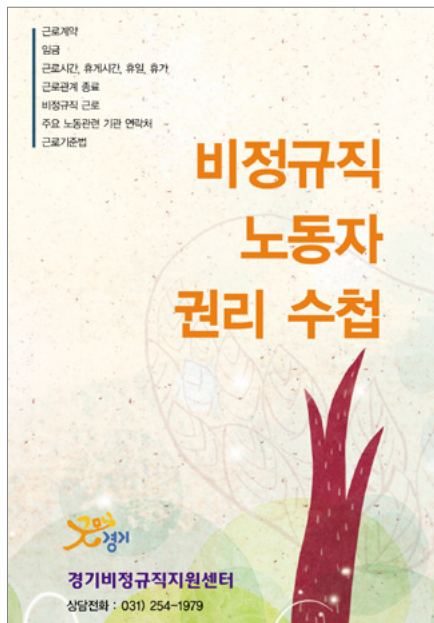
2016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



2016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 목차

- 제1장 비정규직 현황
- 제2장 법률상담 사업
- 제3장 연구조사 사업
- 제4장 교육 사업
- 제5장 노사민정 네트워크
- 제6장 경기도 비정규직 현안 정책토론회
- 제7장 비정규직 희망찾기 축제
- 제8장 노동취약계층 지원사업
- 제9장 소식지
- 제10장 직종별 비정규직 현안
- 제11장 경기도 노동관련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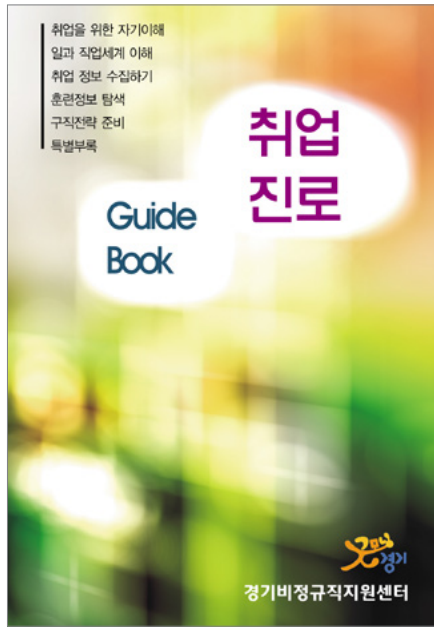
2017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수첩



2016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 목차

- I. 근로계약
- II. 임금
- III.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 IV. 근로관계 종료
- V. 비정규직 근로
- VI. 주요 노동관련 기관 연락처
- VII. 근로기준법

취업진로 Guidebook



취업진로 Guidebook 목차

- I. 취업을 위한 자기이해
- II. 일과 직업세계 이해
- III. 취업 정보 수집하기
- IV. 훈련정보 탐색
- V. 구직전략 준비
- VI. 특별부록



[요양보호사들이 뿔났다]



김광민
경기도요양보호
사협회 사무국장

비와 눈이 섞여 오던 2017년 2월 22일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보건복지부로 항의 방문 과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노인요양등급 3,4등급의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1시간 단축시킨 3시간 만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한 가정에 방문한 후 2시간이 지나야 또 다른 집을 방문하는 규정대로 라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종사자들에게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오르며, 공 단에서도 방문요양 수기도 상향 조정 됐다고 주장 하지만, 결국은 근로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고, 기존엔 없었던 토요일에도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여 오히려 근무여건은 뒤로 후퇴되는 결과라고 일선의 요양보호사들은 성토했고 있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과 장기요양위원회의 경기요양보호사협회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요양보호사 단체인 [경기도요양보호사협회]는 이날 정부에 강력 항의 하기로 하여, 집회신고와 더불어 11시 담당공무원을 만나 항의 서한과 경기전역에서 받은 “방문요양 3,4시간 단축 철회 촉구 서명”용지를 전달 했습니다.

경기도 요양보호사 협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을 가졌습니다.

이자리에는 방문요양으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물론 수원지역의 4등급 어르신의 보호자도 3,4등급에 관한 일방적인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으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정부에서 탁상행정을 안하기 위해 1주일이라도 현장에서 일해보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청객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자리에 참석하여 요양보호사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에 서 처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부위 원 문경희 도의원과 경기요양보호사협회가 지난해 2016년 12월 14일 간담회를 가져 경기도에도 요양보호사 지원센터와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여 공정적으로 고민해보겠다는 합의에 이어져서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자리로 발전된 것입니다.

※ 요양보호사 관련 자료는 센터 홈페이지(www.behappyone.kr) >센터소식 >센터의 창, **바로가기**)에서 읽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 센터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3,4 등급 방문요양 1시간 단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장기요양 3,4 등급 이용자에게 4시간 서비스 제공하던 것을 3시간으로 축소 시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당사자인 요양보호사와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요양보호사협회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장기요양 업무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을 후퇴시키는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 일 시 : 2017. 2. 22(수) 14:00 ~ 14:30
- 장 소 : 경기도 기자회견실
- 참 석 자 : 요양보호사, 시민사회단체 등 50여명
- 주 최 : 경기도요양보호사협회/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노동정책포럼 (준) 2차 모임

경기노동정책포럼 준비위원회는 경기도가 올바른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목적으로 만든 상설모임으로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의 주도 하에 만든 모임입니다. 지난 2월 7일 1차 모임을 가졌으며, 참석자를 경기도 담당 공무원, 관심 있는 도의원으로 확대하여 2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 일 시 : 2017. 2. 28 (화) 15:00~17:00
- 장 소 : 경기도의회 4층 농정해양전문위원실
- 주요내용 : 올바른 경기도청 노동행정조직 재편 방향
- 참석자 :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전문의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 경기도 담당 공무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2017년 상반기 도·시군·공공기관 합동 교육

경기도·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보호 교육이며, 2017년에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7. 3. 24(금) 10:00 ~ 17:00
- 장 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109호)
- 대 상 : 경기도·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 직·간접 고용근로자 채용 및 임금지급 관리업무 담당 200여명
- 주 최 : 경기도/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노사발전재단(차별없는일터지원단)
- 주요 내용 : 근로조건 보호지침 / 비정규직 관련 법령 / 비정규직 차별예방 / 단체협상 실무 / 경기도 생활임금제도 확대시행 안내

2017 경기지역 노동권 교육 신청안내 바로가기

센터에서는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동권 교육을 지원하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의 후원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노동권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 개요

○ 노동권 기초 교육

- **교육목표** 노동권 기초 학습, 노동권 인식 확대
- **교육대상** 경기도 내 거주자,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인 이상)
- **교육내용** 노동인권, 노동법 일반, 구제절차 (교육대상에 따라 세부내용 조정)
- **교육시간** 1회, 2시간
- **교육방법** 강의형 교육
- **교육일시 및 장소** 사전협의 (장소 대여료는 신청자 부담)
- **지원내용** 노동권 전문강사 파견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강사로 지급)

○ 노동권 심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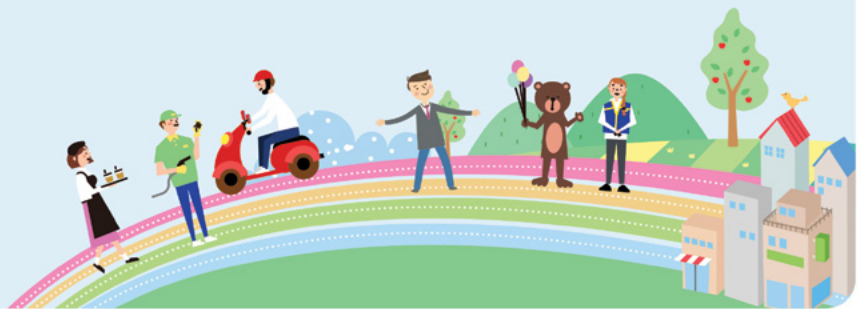
- **교육목표** 노동권 심화 이해, 노동권 멘토 양성
- **교육대상** 노동권 기초 교육 이수자 또는 노동권 기초 교육 수료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자 (10인 이상)
- **교육내용** 교육대상에 따라 세부내용 협의
 - 주요 교육내용**
노동인권, 노동법 일반,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 산업안전보건, 비정규 노동, 이주 노동, 여성 노동, 노동조합 활동, 노동이슈 등
- **교육시간** 사전협의
- **교육방법** 강의형 또는 참여형 교육
- **교육일시 및 장소** 사전협의 (장소 대여료는 신청자 부담)
- **지원내용** 노동권 전문강사 파견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강사로 지급)

교육 신청

- **접수기간** 2017년 2월 ~ 2017년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gblabor2@gmail.com)
홈페이지 접수(www.behappyone.kr : 노동권교육)
교육신청 메뉴)
- **활동기간** 2017년 2월 ~ 2017년 12월
- **문의전화** 031-254-1923

노동권 멘토 모집 및 활동

- **자격요건** 노동권 심화 교육 수료자
- **모집정원** 80명 이내
- **모집기간** 노동권 교육 사업기간 중 상시
- **활동기간** 2017년 2월 ~ 2017년 12월
- **활동내용**
 - 노동권 알리기
 - 노동권 교육 사업 홍보 및 지원
 - 기타 프로젝트 활동
- **활동조건** 멘토 워크숍 참여 및 활동 보고서 제출
- **지원내용**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gblabor2@gmail.com
- **문의전화** 031-254-1923



2017 희망찾기 연극 동아리 모임 신청안내

전문 연극인과 함께 연극 동아리에 참여하실 분은 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254-1923)
연극동아리는 개별 접수는 받지 않으며,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극장’

비정규직 연극교실 참가팀 모집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전문 연극인과 함께할 연극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각 팀은 2017년 비정규직 희망찾기 축제 주간 연극제에 공연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대상 : 연극에 관심있는 비정규직 노동단체(조합)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

모집기간 : 2017년 3월 1일 ~ 4월 15일 까지 (발표: 개별연락)

프로그램 일정 : 2017년 5월 ~ 10월

참가비 : 무료

주최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후원 : NEXT경기

문의: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 031.254-1979/1923